

COME TOGETHER

아산무궁화축구단
월간 매거진 **함께해U**

제7호

2017년 08월



REVIEW & PREVIEW

4경기 무승, 아쉬움의 7월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의 운명이 걸린 8월

INTERVIEW

전역을 앞둔 '언성히어로' 조성진의 이야기
"제대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EWS

아산무궁화의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AUGUST HOME MATCH

아산  VS  부산
08월 05일(토) 19:00 @이순신종합

아산  VS  안양
08월 14일(일) 19:00 @이순신종합

아산  VS  부산
08월 27일(일) 19:00 @이순신종합



푸드렐리

EG the1

 세계물산 **BASSO**

 신성건설  미소지움

 IMPERIAL SPORTS
(유)임페리얼 스포츠

ASAN MUGUNGHWA
PREVIEW

4경기 무승,
아쉬움의 7월



K LEAGUE CHALLENGE 19ROUND



0 무 0
2017.07.01 (SAT) 19:00
@YISUNSIN
803



ASAN
MUGUNGHWA

ANSAN
GREENERS

-	골	-
9	슈팅	9
5	유효슈팅	0
15	파울	8
2	경고	1
0	퇴장	0
1	코너킥	3
10	프리킥	16
1	오프사이드	2
53%	점유율	47%

K LEAGUE CHALLENGE 20ROUND



0 패 2
2017.07.08 (SAT) 19:00
@YISUNSIN
1,326



ASAN
MUGUNGHWA

SEONGNAM
FC

-	골	45' 박성호 56' 이창훈
11	슈팅	9
4	유효슈팅	6
16	파울	18
4	경고	5
0	퇴장	0
2	코너킥	4
18	프리킥	16
0	오프사이드	0
53%	점유율	47%



아산 무궁화가 지난 7월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하며 승점 2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7월 시작 시 3위였던 순위는 5위로 내려앉았다.

승격을 목표로 하는 아산 무궁화에게는 7월 한 달이 매우 중요했다. 특히 7월 첫 경기 상대인 안산을 반드시 잡아야 했다.

아산 무궁화는 안산과의 경기에서 유효슈팅 수가 5:0으로 앞섰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에 한지호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는 등 불운이 겹치며 무승부에 그쳤다.

이어진 성남과의 경기에서 0:2 패배를 기록했고, 최하위 대전과 1:1 무승부, 그리고 선두 경남에 1:3으로 패하며 7월을 마무리했다. 특히 대전, 경남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골대 불운을 겪은 점이 뼈아팠다.

아산 무궁화는 6월까지 경기당 평균 1.2 득점을 기록한 반면 7월 한 달 4경기 동안 총 2득점, 경기당 0.5 득점에 그치며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냈다. 다시 상위권으로의 도약하기 위해선 골 결정력 보완이 시급하다.

아산 무궁화가 주춤하는 사이 승격 플레이오프 티켓을 두고 경쟁하는 부천과 성남이 승점을 쌓은 탓에 순위는 플레이오프 진출권 밖인 5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승점 차가 1,2점에 불과하고, 부천, 성남에 비해 1경기를 덜 치렀기에 아산 무궁화에게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다.

남은 경기에서 아산 무궁화가 어떤 반전을 보여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ASAN MUGUNGHWA RANKING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경남	48	14	6	2	38	19	19
2	 부산	41	12	5	5	35	21	14
3	 부천	33	10	3	9	31	27	4
4	 성남	32	8	8	6	20	16	4
5	 아산	31	8	7	6	23	19	4
6	 수원FC	30	7	9	6	24	26	-2
7	 안양	28	8	4	10	26	32	-6
8	 안산	20	4	8	10	23	36	-13
9	 서울이랜드	17	3	8	11	21	34	-13
10	 대전	15	3	6	12	25	36	-11

K LEAGUE CHALLENGE 21ROUND



DAEJEON
CITIZEN

1 무 1

2017.07.15(SAT) 19:00
@DAEJEON
2,167



ASAN
MUGUNGHWA

13' 브루노	골	77' 남준재
14	슈팅	20
4	유효슈팅	5
10	파울	18
1	경고	4
0	퇴장	0
0	코너킥	11
20	프리킥	15
5	오프사이드	2
38%	점유율	62%

K LEAGUE CHALLENGE 22ROUND



GYEONGNAM
FC

3 패 1

2017.07.24(MON) 19:00
@CHANGWON
815



ASAN
MUGUNGHWA

35' 배기중 47' 정현철 82' 김근환	골	12' 이재안
18	슈팅	7
6	유효슈팅	4
5	파울	17
2	경고	1
0	퇴장	0
6	코너킥	2
17	프리킥	8
3	오프사이드	0
51%	점유율	49%





ASAN MUGUNGHWA
PREVIEW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의 운명이 걸린 8월

아산무궁화축구단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7월을 뒤로한 채, 8월의 일정을 시작한다. 아산은 부천 홈경기를 시작으로 안양, 수원FC, 부산을 차례로 상대한다.

아산의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의 운명이 8월의 대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부천, 안양, 수원FC를 차례로 만나기 때문이다.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권은 2~4위 팀에 주어지는데, 2위 부산은 승점 41점으로 다른 팀들에 비해 한결 여유로운 상태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은 3위 혹은 4위로 시즌을 마치고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짓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3위 부천의 승점은 33점, 그리고 7위 안양의 승점은 28점으로 차이가 단 5점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아산은 승점 31점으로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권 밖인 5위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 팀들에 비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또 한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8월 만나게 될 경쟁 팀들과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이다. 올 시즌 아산은 부천, 안양, 수원FC와 각각 두 번씩 만났는데, 모두 승리를 가져오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이 세 경기를 승점 6점짜리 경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

아산은 이어서 2위 부산을 상대한다. 부산을 상대로는 1무 1패로 한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부산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8월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9월엔 팀의 주축 선수들의 전역이 예정돼있어 전력 약화가 예상된다. 때문에 8월에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아야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8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산이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8월 23일(수) 예정되었던 서울이랜드와의 경기는 오는 11월 4일(토)로 연기됐다.



AUGUST MATCH UP

8월 23일(수) 서울이랜드전은 11월 4일(토)로 연기되었습니다.



VS



아산무궁화

부천FC

경기 결과에 순위가 뒤바뀐다

08월 05일(토) 19:00이순신종합

아산무궁화가 올 시즌 부천을 두 번 만나 모두 승리를 거뒀다. 특히 이번 경기의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에 아산은 반드시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해야 한다. 아산에게는 8월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올 시즌 상대전적



VS



아산무궁화

FC안양

압도적인 경기력 이어 나간다.

08월 14일(월) 19:00 @이순신종합

아산무궁화는 올 시즌 안양을 두 번 만나 모두 승리를 거뒀다. 특히 6득점과 0실점의 기록이 말해주듯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아산은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안양을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한다.

올 시즌 상대전적



VS



수원FC

아산무궁화

이번에도 무실점 경기를?

08월 20일(일) 19:00 @수원종합

아산무궁화는 올 시즌 수원FC를 두 번 상대하며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수원FC는 지난달 1,2위 팀인 경남과 부산을 잡으며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원FC의 이승현이 모두 득점을 기록했다. 아산에게는 이승현을 봉쇄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아산이 수원FC를 상대로 다시 한번 무실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 시즌 상대전적



VS



아산무궁화

부산아이파크

이번엔 이긴다

08월 27일(일) 19:00 @이순신종합

아산은 부산을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하며 단 한차례도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첫 경기 부산과의 무기력한 패배와 달리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저력을 보여주며 무승부를 거뒀다. 패배와 무승부, 그다음은 승리할 차례이다.

올 시즌 상대전적



"인사가 늦었습니다" 1087기를 소개합니다!

3

공중의 지배자
수비수 김상필



포지션 수비수
키 188
몸무게 84
생년월일 1989.04.26
이전소속 충주합맥

25

원샷원킬의 계보를 잇는다.
공격수 김민균



포지션 공격수
키 173
몸무게 68
생년월일 1988.11.30
이전소속 FC안양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아산에 온 것에 감사하고, 팀이 클래식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산무궁화축구단에 들어오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29

아산의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수비수 박선용



포지션 수비수
키 173
몸무게 67
생년월일 1989.03.12
이전소속 포항스틸러스

39

강한 정신력으로 경기장을 지배한다.
수비수 민상기



포지션 수비수
키 184
몸무게 79
생년월일 1991.08.27
이전소속 수원삼성

아산무궁화축구단, 그리고 팬 여러분과 특별한 기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산 팬 여러분께 K리그 클래식의 열기를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꼭 승격하겠습니다.

아산무궁화축구단에 입단하게 되어 영광이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수비수 이용



포지션 수비수
키 187
몸무게 83
생년월일 1989.01.21
이전소속 강원FC

89

아산의 새로운 활력소
미드필더 박세직



포지션 미드필더
키 178
몸무게 76
생년월일 1989.05.25
이전소속 인천유나이티드

아산무궁화축구단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지만, 나보다 팀과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충성!

아산무궁화축구단의 일원으로 팀이 승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 팬분들께서 경기장에서 많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1088기 인사드립니다!

26

넓은 활동량으로 상대를 저지한다.
미드필더 허범산



포지션 미드필더
키 180
몸무게 72
생년월일 1989.09.14
이전소속 부산아이파크(임대)

44

아산의 새로운 진공청소기
미드필더 김영남



포지션 미드필더
키 178
몸무게 75
생년월일 1991.03.24
이전소속 부천FC

좋은 팀에 입단하여 존경하는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팀에 적응하여 팀과 저 모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산무궁화축구단에 3번의 도전 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팀에 들어온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

아산의 새로운 폭주기관차
미드필더 김부관



포지션 미드필더
키 170
몸무게 68
생년월일 1990.09.03
이전소속 수원FC

71

끝까지 포기란 없다.
미드필더 조성준



포지션 미드필더
키 176
몸무게 67
생년월일 1990.11.27
이전소속 광주FC

최선을 다해서 꼭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시합을 뛰든 뛰지 않든, 앞에서든 뒤에서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구선수라면 꼭 가고 싶은 팀에 제가 들어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하는 동기와 선임들께 많이 배워, 제대할 때까지 팀에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90

공수 모두 겸비한 만능
수비수 구대영



포지션 수비수
키 177
몸무게 72
생년월일 1992.05.09
이전소속 FC안양

91

한 발 더 뛰는
공격수 김륜도



포지션 미드필더
키 187
몸무게 74
생년월일 1991.07.09
이전소속 부천FC

아산무궁화축구단에 입단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2년의 시간 동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팀에 들어온 만큼 항상 배우는 자세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서 조금이나마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아산 무궁화 축구단의 NO.6 수비수 조성진입니다.

축구선수 조성진은? 저는 빌드업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수비수입니다. 수비 진영에서 무의미하게 공을 걷어내는 것보다 빌드업 해서 차근 차근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합니다.

내무만 내의 조성진은? 저는 단체 생활을 할 때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면서, 티 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는 유형입니다.

8월 매치데이매거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됐다. 소감은? 아산무궁화 매치데이매거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팀의 성적이 좀 더 괜찮았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다시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아산이 생소한 팬, 혹은 시민분들이 많다. 아산은 어떤 팀인지, 아산은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인지 팬들에게 소개해달라. 아산은 선수들이 군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축구팀입니다. 선수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 경기장에서 강한 정신력과 플레이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전에 있던 소속팀과 아산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군 팀은 동료들과 함께 24시간 먹고, 쉬고, 자고 훈련받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가 더 돈독해질 수 있고, 전우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제약이 많다는 것? 행동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점, 여자친구나 친구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점?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감수하면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고참 선수로써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남은 후임들에게 조금이라도 높은 순위를 물려주고 제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 팀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프로 팀 보다 제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과 맞물려 최근에 성적이 좀 부진한데, 그래도 또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해내서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산은 챌린지 최소 실점 2위에 랭크돼있다.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일단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축구 스타일이 수비를 단단히 하여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을 펼치는 축구입니다. 감독님이 지시하신 부분이 경기장에서 잘 나타나 적은 실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산에서 K리그 통산 100경기를 달성했는데, 소감은? 기분은 좀 얼떨떨한데 그런 기록에 별로 관심을 잘 두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솔직히 100경기인 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00경기 출장이라고 주변 동료들이나 가족, 친구들이 축하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우선은 그동안 저를 가르쳐주셨던 스승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했던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경기에도 많이 나갈 수 있었고, 100경기 출장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경기 300경기 등 출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선수로서의 목표가 무엇인가? 축구선수라면 당연히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축구 선수의 꿈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목표를 가

지고 열심히 운동하고있습니다. 또 당장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상 없이 수원에 잘 복귀해서 조금이나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분이 어떨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전역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뒤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구나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일단은 군대에 와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축구만 할 때는 이런 생활을 느끼지 못했는데, 군대에서의 경험이 축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저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기억에 남는 부분?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얻어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훈련소에서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조교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는 부분이 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좀 더 군대에 빨리 올 걸이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후임들에게 어떤 선임이었는지? 저희는 군인이기도 하지만 전역 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볼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까다롭게 후임들을 대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해줬습니다. 절대 후환이 두려워서서는 아닙니다.(웃음) 나가서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후임? 한의권입니다. 대체로 후임들이 다들 착합니다. 그나마 의권이 까불까불합니다. 초반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 안 하더니 적응하고 나니까 까불까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역 후 아산을 상대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 전역 후 상대로 만나게 될 때, 감독님이나 코치님, 그리고 선수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경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료 선수들 혹은 후임 선수들에게 한 마디~! 남은 군 생활 다치지 말고, 원했던 목표 잘 이뤄서 건강히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에서는 '비타민스쿨' 등과 같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나 행사를 자주 갖는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했던 소감?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아산 축구단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저희 선수들이 많이 힐링을 받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순수하게 대해줘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저희 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선수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더 멋진 경기력과 결과로 충분히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할 때까지 아산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ASAN MUGUNGHWA
PLAYER INTERVIEW

전역을 앞둔 '언성히어로'
조성진의 이야기

“
제대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역을 앞둔 언성히어로

수비수 조성진

생년월일 1990.12.14

키 187 cm

체중 80 kg

포지션 수비수

입대일자 2015.12.24

전역일자 2017.09.23

전소속팀 수원삼성



아산무궁화, U-18팀 공개테스트 진행



아산무궁화가 팀 창단 후 첫 번째 U-18팀 공개테스트를 진행했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지난달 2일(일)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U-18팀 공개테스트를 진행했다. 공개테스트는 오후 1시부터 약 4시간가량 이어졌고, 전국에서 모인 약 70여명의 선수들의 합격에 대한 의지로 테스트장은 더욱 뜨거웠다.

공개테스트 심사에는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박성관 대표이사를 비롯, 송선호 감독, 박동혁 수석코치 등 코칭스태프가 모두 나서 아산을 대표할 첫 번째 유소년팀 선수 선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산무궁화 U-18팀에 뽑힌 선수들은 프로축구단 산하 유스팀으로 구단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가운데,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성장하게 되며, K리그 프로 산하 팀들이 출전하는 'K리그 주니어' 리그 및 유소년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또한 '공부하는 유소년'을 표방하는 아산무궁화 U-18팀은 학생들의 학업 및 학사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소년 선수들의 축구실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추구한다.

박성관 대표이사는 "아산을 대표하는 유소년 팀으로서, 연령별 대표, 나아가 아산 출신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고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산무궁화, 온양초사초에서 무더위 속에 청량한 축구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선수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온양초사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과 청량한 축구를 함께했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지난달 21일, 온양초사초등학교에서 일일 축구 교실 프로그램인 '비타민 스쿨'을 통해 어린이들과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축구교실에는 아산무궁화의 임선영, 주현재, 손정현, 정성민이 어린이들과 함께 축구 기본기를 비롯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병행하며 축구의 즐거움을 공유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당이 없는 작은 학교인 온양초사초등학교에서는 선수들과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겼다. 무더운 날씨 속에 땀이 비 오듯 흘렸지만, 선수들과 어린이들은 오히려 더욱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운동장 한 편에 자리한 두 그루의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서 쉬 때는 산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다.

비타민스쿨 일일교사로 나선 임선영은 "정말 더운 날씨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했는데, 덥긴 했지만 매우 즐거웠다. 어린이들이 8월 5일 홈경기에 꼭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유쾌한 소감을 남겼다.

한편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온양초사초등학교를 비롯한 아산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비타민스쿨'을 진행할 예정이며, '비타민스쿨'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경기장에 초청하여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아산무궁화, '볼비어 글라스 패키지'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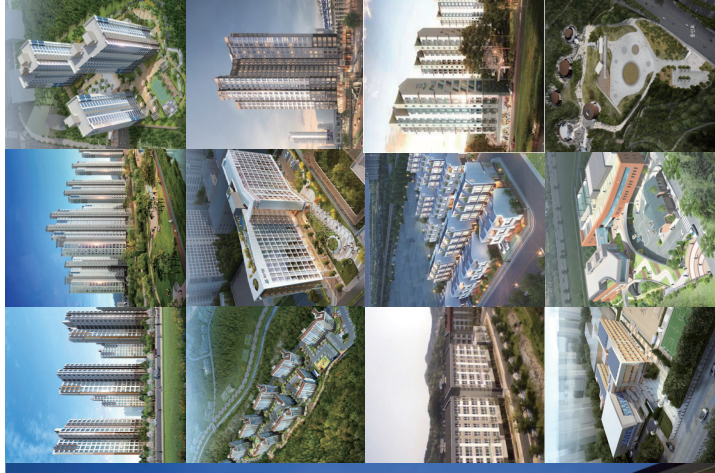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볼비어 글라스 패키지' 출시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 K리그 공식 후원 맥주 볼비어와 함께 팬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자 '볼비어 글라스 패키지'를 출시하였다.

엠블럼 등 구단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맥주 글라스와 볼비어 축구 맥주가 함께 제공되는 '볼비어 글라스 패키지'는 8월 5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부천FC와의 홈경기부터 100SET 한정 제작되어 12,000원에 판매된다.

생활을 짓는
공간을 짓는
미소를 짓는
MISOZIUM



2004 브랜드파워 대상 (브랜드문화)
2005 주거문화대상 수상
2007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대상 '신뢰도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7년 하반기 '환경 주거문화대상' 수상(북한 대상 수상)
2008년도 대한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 수상 (건축시절부문)
2009 아틀라디온 건축물 전시대회 표창 수상 (신사 미타역)
2011년도 뿌리기술 경가대회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47
SG타워 6층
SG 신성건설
MISOZIUM

SG 신성건설 이 만들면 명품이 됩니다

SGSHINSUNG OF INNOVATION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새로운 주거문화





아산무궁화축구단 선수단 명단

감독
송선호



코치 박동혁



코치 안승인



GK코치 최익형



트레이너 엄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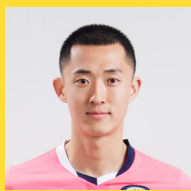
트레이너 정성령



1 GK 손정현
191cm 87kg



13 GK 박형순
184cm 78kg



31 GK 박주원
191cm 80kg



2 DF 정다현
180cm 82kg



3 DF 김상필
188cm 84kg



4 DF 안영규
185cm 73kg



6 DF 조성진
187cm 78kg



12 DF 황도연
183cm 74kg



15 DF 하인호
180cm 78kg



22 DF 김준엽
174cm 68kg



27 DF 박요한
177cm 73kg



29 DF 박산웅
173cm 67kg



32 DF 이주용
180cm 76kg



37 DF 김동철
180cm 75kg



39 DF 민상기
184cm 79kg



70 DF 이용
187cm 83kg



77 DF 이으뜸
178cm 68kg



90 DF 구대영
177cm 72kg



5 MF 임성영
185cm 78kg



8 MF 최진수
178cm 71kg



10 MF 이현승
171cm 72kg



14 MF 김은선
182cm 78kg



16 MF 주현재
180cm 74kg



20 MF 최보경
184cm 79kg



21 MF 김종국
180cm 71kg



23 MF 남준재
183cm 75kg



26 MF 허범산
180cm 72kg



33 MF 이창웅
180cm 75kg



44 MF 김영남
178cm 75kg



64 MF 김부관
170cm 68kg



71 MF 조성준
176cm 67kg



89 MF 박세직
178cm 76kg



99 MF 김재웅
173cm 68kg



7 FW 한지호
179cm 73kg



9 FW 김동섭
188cm 80kg



11 FW 황지웅
178cm 65kg



17 FW 이재안
181cm 81kg



18 FW 공민현
182cm 70kg



19 FW 정성민
184cm 77kg



24 FW 한의권
181cm 72kg



25 FW 김민군
173cm 68kg



30 FW 김현
192cm 86kg



88 FW 서용덕
176cm 69kg



91 FW 김윤도
187cm 74kg